

하느님의 [가난함]을 사는 것
~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 선택(Option for the poor) ~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즈카 요시나오

◆ 『불쌍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2013 년 3 월, 교황 베네딕트 16 세의 은퇴와 함께 행해진 콘크라베 (교황선거) 에서 제 266 대의 교황님으로 선출되신 베르고리오 추기경님께, 어느 추기경께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새교황님은 “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희망하셨는가” 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말들이 제 안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련된 아씨의 프란치스코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투표의 합계가 끝날 때까지 전쟁에 관하여 생각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아씨의 프란치스코라 하는 이름이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등장은 현대 카톨릭교회에 있어서 섭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 2 바티칸공의회를 계기로 (교회헌장 8 항참조),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선택” (Option for the poor)을 추진시켜온 카톨릭교회가 현대세계에 대하여 복음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금이 바로 자기 자신이 가난함을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가난함’ 이라 하는 것은 의외로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가난함’ 의 반대의 ‘부’ 와 ‘풍부함’ 이라 하는 개념도 어떻게 취하는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난함’ 이란 개념을 ‘물질적’ 인 것과 ‘정신적’ 인 것으로 나뉘, 더 나아가 각각 ‘부정적’ 인 것과 ‘긍정적’ 인 것으로 분류해 봅니다.

부정적인 ‘물질적 가난함’ 이란, 인간성을 빼앗는 것으로 근절해야만 하는 빈곤입니다.

긍정적인 ‘물질적 가난함’ 이란, 신앙의 의해 자발적으로 추구해 가는 복음적인 가난함입니다.

부정적인 ‘정신적 가난함’ 이란, 사람이 부에 빠지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정신적, 영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정신적 가난함’ 이란,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 운유하고 겸손하게 길들여지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목교서에서는 가난함에 관하여 파트 1, ‘물질적인 가난함’ 에 관하여 다루고, 내년의 사목교서에서는 가나함에 관하여 파트 2, ‘정신적, 영적인 가난함’ 에 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1.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기

[인격적 센스]

구약시대의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의 외침을 듣는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압박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의를 불러일으킨다’ 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느님’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신약시대에서는 하느님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함과 약함을 몸에 지니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은 하느님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나 마리아의 찬가(루카 1. 46 - 55), 그리고 예수님의 진복팔단[眞福八端](마태복음 5. 1-12, 루카 6. 20-26)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선택은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축복]과, ‘하느님의 나라는 당신들의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닙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선물]이고, 그것은 우리들을 초대하고 싶어하시는 하느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은 하느님의 초대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의 논리의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권고에 따라서, 현대 카톨릭 교회에도 우리들 한명 한명 그리스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방식을 본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의 2 개의 기본자세를 진지하게 검증해 봅시다.

2.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기

[발견적 센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현대인의 죄는 보면서도 못 본척하는 것,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나무라신 태도입니다. 지금 곤란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여 ‘길의 반대편을 통행하여 가는’ (루카 10. 31) 행위입니다. 문전의 라자로를 무시한 행위(루카 16. 20)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나무라셨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 되셨으니,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들은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루카 6. 24)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마태오 19. 23)과 같이 예수님께서서 부유한 사람들을 통렬하게 가르치시는 말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루카 16. 19-31 참조).

세계 도처에 전쟁과 분쟁, 또는 자연재해의 의한 굶주림, 메마름, 아픔, 버려짐, 난민이 되어 이주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변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에 적응이 되어 버립니다. 또는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있으면 인간의 잔혹성, 냉정함, 타인의 아픔에 관하여 둔감함이 상태화 되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감정하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들은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무관심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어 봅시다. 가난의 비참함에 대하여 마음의 눈을 열고 그곳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보고, 보지 않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통회와 우려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인식적 센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을 그저 사회경제의 문제만으로 보지 말고 복음적인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케오와 같은 세관장,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막달라마리아, 심한 피부병을 앓은 사람, 페니키아의 부인등, 이들은 사람들이 업신 여기고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의 경우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비난의 말도(야고보 1.9-11, 2.1-13), 고린토 사람에 대하여 비난의 말도(1 고린토 11.17-22), 당시 지배적이었던 종교적인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사람의 명예와 모욕의 중대함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 현대에도 빈곤은 가지각색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고, 그 결과 온갖 참혹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이 안되는 물질적인 부족함이라는 과혹한 환경아래에서 더욱더 약한 인간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난민이 되어 가족도 없이 고독한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빈곤때문에 정신적으로 피로하여, 사는 의미도 잊어 버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빈곤은 어느 시대에도 폭력이며, 사회적 멸시도 보이지 않은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대상으로, 가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지셨기 때문에’ (이사야 61.1, 루카 4.18 참조) 예수님 자신도 하느님 나라의 선물의 증거로 ‘소경이 보고 절음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마태복음 11.5, 루카 7.22)라고 단언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전하신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제의 사랑의 실천으로 전하도록 노력합시다.

4. 그리스도 처럼 가난하게 되기

[그리스도론적 센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과 완전하게 결합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가난하게 태어나시고(루카 2.7), 보다 가난하게 사시고(마태 13.55), 선교하시며(마태 8.20), 더욱 가난하게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마태 27.54) 그리스도는 ‘가장 작으신 사람’ (마태 25.40)과 하나가 되는 소망, 자기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 인간으로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가난함은 ‘가난하게 있다’ 보다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가난하게 되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분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2 코린 8.9)

요한은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육화의 존재로적 사실)을 강조했지만, (요한 1.14 참조) 바오로는 하느님 아들의 육화 그 모양, 다시 말하면 실존으로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가, 초라한 신분, 고통받는 하인의 모습을 취하는 것(육화의 구체적 의의)를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립비 2.7-8) 구유의 빈곤함에서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 자기방치에 이르기 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만을 신뢰하는 인간이 취해야 하는 극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는 자유로우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생활 방식에 있어서 엄격했던 것에 비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과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대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에 대해서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가난함’에 있어서 자신을 자만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은 그 [정도]보다도 가난함을 선택한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서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 선택’ 합니다.

5.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 보기

[성사적 센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한명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것이다” (마태복음 25.40)라고 말씀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모습을 보인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아,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 하여라” (마태복음 25.34). 그렇게 하여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같은 말을 최후의 심판의 장면에 대입하여 ‘작은 사람’으로 묘사하시면서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시 합니다. 성요한 크리스토포 (4 세기의 주교, 교회박사)는 이 동일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찬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가 알몸인 것을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교회 밖에서 알몸으로 추위에 떨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잊고, 교회 안에서 비단옷을 걸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러러봐서는 안됩니다” (마태복음서에 대하여 설교).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와 그 다른 성사와 같이 ‘가난한 사람’ 들 중에도 현존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자신이 언제나 꼭 자신의 집에 그리스도를 있게하고, 자신에게 눈치챈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은혜를 만들어 내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난한 사람’ 과 관계가 있을 때 ‘가난한 사람’ 들 안에 그리스도가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자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맞아 드립니다.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 들이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증거합니다.

6. 가난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실천적 센스]

자국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요즘 세계경제 흐름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 손에만

거액의 자산이 모이고, 그 반면 많은 사람들은 빈곤과 무시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 할 수 있을까요? 그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고통과 곤궁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즉시 지원의 손길을 뻗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 16).

예수님은 그것을 명령 합니다. 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빈곤은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는 피해야 하는 사회악으로서, 빈곤과 싸워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원조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빈곤을 없애기 위해 사회의 복음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탄 시대의 신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카리타스)를 의미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실천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 시성운동을 하고 있는 유스토 타카야마 우콘(高山右近)은 아버지 다리오와 함께 ‘미제리코르디아의 모임’에 속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등 당시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구제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교황 바오로 6 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는 복음선교자에게 생활의 진정한 증거로 해서 “단순검소한 생활, 기도의 정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 특히 작고 가난한 사람들에게게의 사랑, 순종, 겸손, 이설, 자기희생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 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절전과 탈원전이 외쳐지는 와중에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요구하는 단순검소한 생활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7.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기

[구체적 센스]

복음선교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난함’ 속에서 하느님만을 신뢰하는 생활태도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계를 구한 십자가를 널리 알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가난함’ 그 자체 입니다. 그 십자가가 잃어버린 인간 생명의 풍부함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 10).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이 풍성하게 생명을 얻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님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2 고린토 8. 9).

구원이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다] 라는 것은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 비뚤어진 인간성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하느님이 선택한 방법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립비 2. 6). 하느님의 본질과는 정반대의 가난함, 약함, 어리석음을 몸에 지니고, 타락한 인간을 구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의 본질을 알아 보시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하느님을 아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 고린 1. 21).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함과 약함을 통해 실현하는 [어리석은] 선교라는 수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가난함’과 교회가 맡은 선교를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리석은 선교를 위하여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야고보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차지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2.5)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빛남을 청하고 일부러 자기 자신부터 가난함을 택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합시다.

8. 기쁘게 가난하게 되기

[총합적 센스]

그리스도인의 [가난함]은 금욕주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난함’은 무언가가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고사하고 예수님의 생명속에 충만하고 최고의 가치, 복음이라 하는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의 기쁨에서 오는 ‘풍족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서는 감춘 보물로 예를 들어(마태복음 13.44)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팔고 나서 감춘 보석을 찾으러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보석을 찾은 기쁨을 알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한다면 전 재산을 파는 것 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찾지 않고서, ‘가난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난함’은 하느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아닙니다. ‘가난함’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의 결과이고, 효과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가난함 입니다. 가치있는 진주의 예(마태복음 13.45-46)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즉시 그것을 선택해 손에 넣어야만 합니다. 찾아 냈을때가 인생을 변화 시킬 때 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 보다 영적인 것,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 보다는 영원한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리들도 고통스런 생활속에서도 돈으로는 살수 없는 복음의 보물을 발견, 기뻐하며 가난함을 택한 신앙을 살아갑시다.

9. 가난함을 자유롭게 살기

[비판적 센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택한 복음적인 가난함은, 추상적인 이상도 아니고 또 단순한 카리스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 신비에 관여하여, 그리스도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나라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 있어서 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함’ 없는 그리스도는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가난함’도 없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르코 10.28)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따르는 사람에게 결코 ‘가난함’을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함’을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천국을

약속하는 것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부가 이미 의미를 가지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여(종말론적동기) 지금부터 그리스도 ‘가난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살아 간다는 사도적이며 예언적인 ‘가난함’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극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가난하게 살아 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자나, 수도자, 신자들의 교회안의 신분과 각자가 놓여진 환경에 따라 자기 스스로 ‘가난함’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권고라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도자의 [청빈], [정결], [순종]의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한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으로 있는 것’의 균등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각자가 발견한 하느님의 나라라는 값 비싼 진주를 잊지 않기 위해 그 빛으로 자신의 생활을 비춥시다.

10. 가난한 교회가 되자

[공동체적 센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 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사도행전 2.44-45, 4.32-35 참조). 교회적인 사귄 속에서 ‘물질적인 가난함’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있어서 소홀해서 안되는 의무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결코 폐쇄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을 찾아 구하고, 세계의 한구석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2013년 성령강림 미사 설교). 교회가 실행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우선적 선택”은 공동체 전원이 각각의 방식으로 분담, 채워주고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되는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난함]과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함에 있어 제자들에게 그 무엇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 했던 것처럼(루카 10.4) 자신의 인생을 걸어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일절 몸에 가져서는 안되며, 오로지 말씀만을 지니고 가는 것입니다. [가난함]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권위에 의지 하지 않고 은혜로써 받아 들이는 신앙의 열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 말하면서, 세상의 상식이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부를 우선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항상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선교]에 대하는 우리들도 알려진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충실하게 살아 가도록 우리 자신의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립시다.

11. 가난한 사람에게의 사랑을 성령께 기도하기

[성령론적 센스]

‘가난함’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과 함께 그 열매에 의해 인도됩니다.

성령께서는 현대인의 과잉한 소비주의적 행동을 변화시키고, 쾌락주의와 싸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나 개인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기쁨, 평화, 관용, 친절, 선의, 성실, 온유, 절제]라 하는 성령의 열매가(갈라티아 5. 22-23) 빈곤과의 싸움과 복음적인 가난함의 실천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의 도움의 의해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아 갈 때,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난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함’을 통해서 전달하는 복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사도행전 20. 35)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훈계와 명령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주고 싶다’라 하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것에서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적 가난함]의 추구는 복음의 새로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라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규정의 새로움은 구약의 규정 이상으로, 내용이 엄격하지 않고 그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신앙과 성령의 은혜가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해주는 곳에 있습니다. 복음의 논리적인 가르침에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성령이란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에 사랑을 키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합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우리들은 『풀기가 넘 뿔뿔한 샤츠처럼 딱딱한 그리스도인』, 『홍차를 조용하게 훌쩍훌쩍 마셔 가며 신학적인 질문을 입에 담은 잘난체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용기있는 그리스도인인 되어야 하며, 더욱더 육화된 그리스도처럼 자기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013년 5월 18일 성령 강림제의 전야의 설교). 교황 프란치스코는 취임후 오늘에 교회에 있어 [가난함]이 선교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꺼리지 않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교황으로서 지금까지 없었던 간소한 생활 행동으로 말없이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황님과 더불어 현대의 교회를 구약전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아나우인](헤브라이어어로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말함) 공동체를 만들어, 변화시켜 갑시다.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벗(성모님의 염원)이신 성모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는 것을 알리고, 자신부터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가난한 사람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가난함]을 사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2014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축일